



국어 영역(B형)

- | | | | | |
|-------|-------|-------|-------|-------|
| 1. ② | 2. ④ | 3. ② | 4. ② | 5. ① |
| 6. ① | 7. ① | 8. ② | 9. ③ | 10. ① |
| 11. ⑤ | 12. ⑤ | 13. ① | 14. ② | 15. ④ |
| 16. ③ | 17. ④ | 18. ④ | 19. ⑤ | 20. ④ |
| 21. ⑤ | 22. ② | 23. ⑤ | 24. ⑤ | 25. ② |
| 26. ③ | 27. ③ | 28. ⑤ | 29. ② | 30. ⑤ |
| 31. ① | 32. ③ | 33. ③ | 34. ① | 35. ④ |
| 36. ④ | 37. ③ | 38. ④ | 39. ③ | 40. ⑤ |
| 41. ① | 42. ③ | 43. ② | 44. ② | 45. ③ |

법

1.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②

토론 참여자 중 반대 1은, 현실적으로 CCTV가 사건이 발생된 후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는 데에 쓰이기 때문에 교내 CCTV의 추가 설치에 학교 폭력과 절도 사고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반대 1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찬성 1은 최근 우리 학교에 몇 차례의 폭력과 절도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찬성 2는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난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반대 2는 찬성 2의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학교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료가 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찬성 3은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등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례를 들어 교내 CCTV의 추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2. 토론의 세부 내용 이해

정답 ④

'교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논제에 대한 토론의 반대 측 발언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반대 1은 CCTV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활용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나 절도 사고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①). 그리고 반대 2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②),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는 생각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3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교문의 경비 인력을 강화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③). 따라서 ①, ②, ③, ⑤는 반대 측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CCTV의 설치 효과를 거두려면 실시간으로 감독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3.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보기>에서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계획성이 강한 강·절도 사건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만, 우발성이 강한 폭력 범죄의 예방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한다면, ②처럼 CCTV가 절도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보기>에서는 CCTV가 우발적 사고 예방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③ <보기>에서 폭력 범죄는 CCTV 설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보기>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 ⑤ 토론에서 반대 측은 학교 폭력이나 절도 사고 예방에 CCTV가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 폭력 범죄는 CCTV 설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4. 대화자의 대화 태도에 대한 평가

정답 ②

대화에서 '인애'는 '새롭'의 고민을 들어주며,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야."처럼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가표에 ②처럼 '아니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등에서 드러나는 태도이다. 따라서 '그렇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고개를 끄덕이며)", "(손사래를 치며)"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렇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웬 한숨이야? 뭘데? 괜찮아. 말해 봐" 등을 통해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새롭'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애'가 '새롭'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표에서 '아니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5. 조건에 맞는 대화 내용의 추론

정답 ①

<보기>에서는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에 따른 사과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어진 대화의 흐름상 ‘인애’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롭’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①이다.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어.”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을 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해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6.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보기> (가)의 ㉠은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으로 나타내는 자료이고, (나)는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자료이다. 따라서 ①처럼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경향을 나타내는 (가)의 ㉡ 자료와 (다)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더욱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이행될 가능성이 큼’이라는 내용을 통해, 고령화의 한 원인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에서 ‘정부는 고령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완화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한 내용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다.

7. 공고문 작성 시 고려 사항 파악

정답 ①

<보기>는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고문이다. 그런데 공고문에서는 안내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하였다. 즉, 공고문은 중요도에 따라 안내문의 내용 순서를 재배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의 공고문에서는 안내문의 제목과 다르게 ‘-입니다’의 경어를 사용하였다.
- ③ 공원에서 행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 행위를 부각하기 위해 공고문에서는 안내문의 일부 내용(‘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 ④ <보기>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안내문에서 제시한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를 공고문에서 ‘음식물 취사’로, ‘애완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애완동물 관리 소홀’로 포괄하여 항목화하였다.

8. 글쓰기 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정답 ②

- ②를 보자. ‘우리 지역 문화재’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우리 지역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한다는 글쓰기 계획에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조사 내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수정 및 보완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계획했던 것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전문가에게는 서면 인터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다.
- ④ 조사 목적이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고서의 제목을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바람직한 보전 방법’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9.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 ㉠이 포함된 문장을 보자. 이 문장의 주어는 ‘이런 모든 일이’이다. 따라서 서술어인 ㉡에 ‘-합니다’나 ‘-하게 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은 주어와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진행됩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설령’은 ‘-다 하더라도’ 따위와 함께 쓰이는 부사로, 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문장에 쓰인다. 하지만 ‘마치’는 흔히 ‘처럼’, ‘듯’, ‘듯이’ 따위가 붙은 단어나 ‘같다’, ‘양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 ‘거의 비슷하게’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 다음에 ‘-한 것처럼’이 오고 있으므로 ㉣에는 ‘설령’이 아니라 ‘마치’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배치’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 또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따라서 ‘배치’는 문맥상 ㉤에 어울리지 않는다. ㉤에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씀.’의 의미를 지닌 ‘배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문 법

10. 반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 <보기>에서는 반의 관계의 종류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상보 반의’,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반의’,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정도 반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문제에서는 이 중 ‘상보 반의’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①이다. ‘참’과 ‘거짓’은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④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정도 반의’에 해당한다.
- ③, ⑤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반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 언어의 특성 이해

정답 ⑤

<보기>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바다’를 개인이 혼자 ‘하늘’ 또는 ‘땅’이라고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이므로 개인이 언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 ⑤이라고 한다.

- ① 언어는 연속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언어는 말소리에서부터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위 내 또는 단위 간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기호 체계라는 것이다.
- ③ 언어 사용자는 한정된 수의 말소리나 단어로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거나 단어의 나열을 통해 무한히 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2.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⑤

⑤를 보자. ‘꽃을’은 받침 뒤에 ‘을’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조사에 연음이 되어 [꼬출]로 발음된다.

- ① ‘맛없다’는 ㅅ 받침 뒤에 모음 ‘ㅏ’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이므로,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어 [마덟따]로 발음된다.
- ② ‘헛웃음’은 ㅅ 받침 뒤에 모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이므로,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어 [허두슴]으로 발음된다.
- ③ ‘겉에’는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로, 받침 ‘ㄷ’이 뒤에 이어지는 조사에 연음이 되어 [거테]로 발음된다.
- ④ ‘밭 아래’는 ㅌ 받침 뒤에 모음 ‘ㅏ’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된 경우이므로, 받침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어 [바다래]로 발음된다.

13. 파생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보기>에서 ㉠은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를 의미한다. 그런데 ①의 ‘군소리’는 ‘쓸데없는’,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군-’에 어근 ‘소리’가 합쳐진 파생어이다. 따라서 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없다.

②는 접미사 ‘-꾼’, ③은 접미사 ‘-쟁이’, ④는 접미사 ‘-질’, ⑤는 접미사 ‘-개’가 각 어근에 결합된 파생어이다.

14. 객체 높임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②

<보기>에서는 특별한 어휘나 조사를 이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오십시오’라는 서술어를 이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학생분들’을 높이고 있으므로, ②는 객체 높임

법이 아닌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① ‘드리다’라는 특별한 어휘와 ‘에게’라는 조사에 의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어느 분’에 대해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③ ‘모시다’라는 특별한 어휘에 의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에 대해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④ ‘뵙다’라는 특별한 어휘에 의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지도 교수님’에 대해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⑤ ‘여쭙보다’라는 특별한 어휘와 ‘께’라는 조사에 의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에 대해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문

[15~18] 지문 해제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기호를 이용한 논리 유형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는 라이프니츠의 논리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현대 논리학은 전통적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를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일상 언어로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인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활용하여 연역 추리에 적합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였는데,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은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15. 내용의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④

지문에서 라이프니츠가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④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① 다섯째 문단에서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마지막 문단의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의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6. 내용 이해를 통한 자료에의 구체적 적용 [정답 ③]

[A]에서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그리고 ‘...거나’는 기호 ‘+’로, ‘그리고’는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치했다. 또한 결합된 명제의 진릿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을 참고하여 <보기>의 ‘가’를 보면, ‘장미는 직장인(1)이고(•) 주부이다(0).’이므로 ‘VI’의 계산식 ‘1•0=0’으로 표현 가능하고, ‘나’는 ‘정호는 축구 선수(1)이거나(+) 야구 선수이다(0).’이므로 ‘II’의 계산식에 따라 ‘1+0=1’로 표현 가능하다.

17. 주장의 생략된 전제 추론 [정답 ④]

다섯째 문단을 보자.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다. 이에 라이프니츠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㉔의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는 ㉔의 ‘컴퓨터의 기계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전제가 생략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8. 표지어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㉔을 보자. ㉔의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㉔ 앞에 제시한 주장에 대한 근거이다. 따라서 ‘㉔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겠어.’라는 ㉔의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이란’은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화제로 삼을 때에 쓰는 보조사이므로, ㉔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읽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이들테면’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의 의미이므로 ㉔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 ③ ‘하지만’은 서로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 ⑤ ‘요컨대’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여러 말 할 것 없이.’의 의미를 가지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회

[19~22] 지문 해제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지표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GDP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그런데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GDP를 산출하기 위해,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산출한 GDP(실질 GDP)를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지표로 활용한다. 경제지표 중 GDP만큼 중요한 것이 GNI인데, GDP가 국민경제의 크기와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경제의 소득 수준과 소비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 세부 정보의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첫째 문단에서 ‘GDP를 계산할 때는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빼는데’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GDP는 총 생산물 가치에 중간생산물 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한다.’라는 ⑤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둘째 문단의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첫째 문단의 ‘GDP를 계산할 때는 ~ 그 결과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과 동일하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③, ④ ‘다만 GDP를 산출할 때는 그해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 화폐로 매매된 것만 계산에 포함하고,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20.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④]

<보기>를 보자. A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하였으므로, A국의 2010년 명목 GDP는 X재의 생산액과 Y재의 생산액을 합한 7,000원이 되고, 2012년 명목 GDP는 21,000원이 된다. 그런데 2010년의 물가 수준이 100이고, 2012년의 물가 수준이 300이므로, 2010년의 물가 수준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2년의 물가 수준은 3배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 GDP는 2010년과 2012년이 동일하므로 ④처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기준 연도인 2010년의 물가 수준을 환산하지 않은 2012년도의 명목 GDP는 2012년 X재의 생산액과 Y재의 생산액을 합한 21,000원이 된다.
- ② 기준 연도인 2010년의 물가 수준을 환산하지 않은 2012년도의 명목 GDP는 21,000원이고, 2010년의 명목 GDP는 7,000원이므로, 2012년도의 명목 GDP는 2010년도 대비 3배 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실질 GDP는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산출한 GDP이므로, 2010년도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2011년도 GDP를 보면, 2010년에는 물가 수준이 100이고 총 생산액이 7,000원이며, 2011년에는 물가 수준이 200이고 총 생산액이

14,000원이다. 따라서 2011년의 물가 수준은 2010년보다 2배 올랐고, 2011년도의 실질 GDP는 2010년의 실질 GDP 7,000원을 뺀 7,000원이 된다.

- ⑤ 지문에 제시된 경제성장률 구하는 공식에 2011년도 자료를 대입하면 $\frac{(2011년도\ 실질\ GDP(7,000원) - 2010년도\ 실질\ GDP(7,000원))}{2010년도\ 실질\ GDP(7,000원)} \times 100\% = 0\%$ 이 되므로 2011년도의 경제성장률은 0%라고 할 수 있다.

21. 내용 이해를 통한 이유 추론

정답 ⑤

마지막 문단의 'GNI는GDP에 외국과 거래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로 생기는 실질적 무역 손익을 합산해 집계한다.'라는 내용과, 'GDP는 무역 손실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GNI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할 때, GDP가 있는데도 GNI를 따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무역 손익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감을 정확히 재기 위해서 (⑤)라고 할 수 있다.

22. 문맥적으로 유사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②

문맥상 ㉠의 '떨어지다'는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 지거나 내려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 ① '병이나 습관 따위가 없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해, 달이 서쪽으로 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학

[23~26] 지문 해제

지구 접선 속도에 대한 이해

중력과 관계없이 물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지구 접선 속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모든 물체에는 중력, 즉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을 수평으로 멀리 던지거나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도 공은 땅에 떨어진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약 8km/s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표면을 따라 계속 떠 있을 수 있는데, 이 속도를 '지구 접선 속도'라고 한다. 오늘날 수많은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3.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지문에서는 지구 접선 속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이 땅으로 떨어지는 사례를 통해 중력의 개념을 설명하였고,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인공위성의 사례를 들었다. 따라서 지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⑤이다.

24. 내용 이해를 통한 자료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셋째 문단에서 어떤 물체가 접선 속도(약 8km/s) 이상으로 날아간다면,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도가 높아질 것이고, 고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에 이른 뒤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상태가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 궤도를 돌던 중에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벗어났겠군.'이라는 ⑤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② 마지막 문단의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약 8km/s로 움직이게 하면 추락하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③ 셋째 문단에서 '약 8km/s라는 접선 속도는 ~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 그 속도로 날게 하더라도 대기와 마찰로 불타버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마찰열에 타지 않게 하더라도 공기의 저항에 의해 속도가 떨어지므로'라고 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를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 이용하는 로켓인 ㉢는 대기권을 통과해야 하므로 대기권에서의 마찰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이때 로켓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지구 탈출 속도는 지표면에서는 약 11km/s이고'라고 한 내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25. 세부 정보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의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 있게 하는 것'을 실현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지표면의 거칠기(㉡)'는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의 곡률(약 0.000625%), 중력, 공기의 저항,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속도 등은 물체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 있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문에 제시된 사항들이다.

26. 문맥적으로 교체 가능한 한자어의 선택

정답 ③

③을 보자. '향상(向上)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의 '(고도가 계속) 높아지다'와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의 '높아지다'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다.'의 의미이므로 '상승하다'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① '작용(作用)하다'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의 '(힘이) 미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도달(到達)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의 '닿는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농후(濃厚)하다'는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의 '(가능성이) 크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공전(公轉)하다’는 ‘한 천체(天體)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돌다.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돌거나 위성이 행성의 둘레를 도는 현상 따위를 이른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㉔의 ‘돌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술

[27~30] 지문 해제

표현주의의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이 글은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의 발생 배경과 표현상 특징, 표현주의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 및 작품 감상 시 고려할 점, 표현주의가 소멸된 이유, 표현주의의 미술사적 의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으로,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받으며,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7. 세부 내용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③

지문에서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③은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 ① 첫째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한다고 언급했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다.
 ④ 첫째 문단을 통해, 표현주의는 독일 사회가 19세기 후반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셋째 문단에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28. 내용 이해를 통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셋째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 「궁핍」을 보면서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② 둘째 문단의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

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라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한 반응이다.

- ③ 셋째 문단의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를 근거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④ 둘째 문단의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반응이다.

29. 문맥을 통한 어구의 의미 추론

정답 ②

첫째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라고 설명하였고, 둘째 문단에서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와 과장된 색채를 선호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으로 인해 현대 회화에서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때, ‘개성적 가치’는 ②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30. 문맥을 고려한 우리말 어휘로의 교체

정답 ⑤

㉔의 ‘시도하다’는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⑤처럼 ㉔을 ‘이끌었던’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포착하다’는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잡아내다’로 고쳐 쓸 수 있다.
 ③ ‘선호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특별히 좋아하였다’로 고쳐 쓸 수 있다.

현대시

[31~33] 작품 해제

(가)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1 - 적군묘지(敵軍墓地) 앞에서」 (1956)

6·25 전쟁 때 숨진 북한군의 시신을 묻은 적군 묘지를 소재로 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비애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초토’는 ‘불이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이 시에서는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을 의미한다.

(나) 정호승, 「부치지 않은 편지」

시대를 앞서간 그대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은 화자가 그대에게 보내는 애도의 편지 형식의 노래이다. 화자는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치열하게 살다 간 그대의 삶과 영혼이 이미 별처럼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화자는 그대의 죽음으로 인해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고, 잎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이슬에 새벽하늘이 다 젖었으며, 우리들 인생도 찬비에 젖고 떠오르던 해도 다시 졌다고 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슬픔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의 화자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생겨난 적군 묘지 앞에서 죽은 이들을 애도하고 있고, (나)는 그대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젖은 화자가 그대에게 보내는 애도의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애도의 마음이 시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시의 흐름상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는 화자가 민족 분단으로 인해 느끼는 아픔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③에서는 이 구절에서 작가가 월남하기 전에 받았던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은 남북이 갈린 상태에서 행해졌던 전쟁의 비극을,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는 죽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전쟁의 참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살아 있을 때의 미움과 증오를 다 잊어버리고 죽은 적군들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매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인간애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④ 여기서의 ‘나의 바램’은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의 작가는 남북이 갈린 현실에서 민족적 비극을 느끼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의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이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 놓아 버린다.’는 동족상잔과 분단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통곡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남북 분단의 비극을 상기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33.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③

ㄱ.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도치법은 정서의 환기나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문장 표현법인데, (나)에서는 도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ㄷ. 청유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 꼴인데, (나)에서는 이러한 종결 어미를 찾을 수 없다.

ㄹ.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떠오르던 붉은 해’ 등에서 시각적 심상이, ‘피울음 울었으나’에서 청각적 심상이, ‘찬 비에 젖고’ 등에서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시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ㅁ. ‘그대 ~지 않아도 좋다’, ‘~이 없어도 ~은 ~’ 등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ㄱ, ㄹ, ㅁ이 짝을 이룬 ③이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4~36] 작품 해제

이호철, 「탈향(脫鄕)」

6·25 전쟁 당시 부산을 배경으로, 고향을 버리고 월남한 실향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피난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있지 않고, 고향을 잃은 것에 대한 한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길을 찾고 있는 모습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근본적인 실존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소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이 ‘실향’이 아닌 ‘탈향’인 것은 타의가 아닌 자의로 고향을 벗어나려는 작중 인물들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6·25 전쟁 중 한마을에서 살다 월남한 네 청년이 부산에서 궁핍한 피난살이를 한다. 기거할 방이 없어, 정지되어 있는 화차간에 숨어 잠깐씩 잠을 청할 정도의 어려운 삶이지만,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고생스럽더라도 함께 이겨 내자고 맹세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편인 두찬과 광석은 ‘나’와 하원을 귀찮게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 광석이 화차에서 실족하여 죽는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광석이 죽은 뒤에 마침내 두찬은 이들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제 ‘나’도 하원을 버리고 도망갈 궁리를 한다.

34.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부산이라는 것과, 등장인물들이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들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품 속 인물들이 경상도 사투리와 이북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③ 주어진 장면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 않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35. 대화에 담긴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④

㉠ 이후의 ‘하원’의 말들을 통해, ‘하원’에게 있어 눈은 곧 자신이 떠나온 고향인 이북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하, 눈 보고 싶다, 눈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말이라면 ㉠의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는 고향과 다른 타지의 특성을 들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6.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심층적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장면의 전반부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려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얹매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광석’의 죽음 이후 술에 취한 ‘두찬’은 “이제 무신 댕쪽으로 동네 가간.”이라고 자책하며 어이없이 울다가 이튿날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찬’이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료들을 떠나는 결과를 보여 준다는 ④는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다.

- ① ‘하원’이 고향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귀향하기로 결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두찬’이 “내, 이제 무신 댕쪽으로 동네 가간.”이라며 우는 모습을 통해 볼 때, ‘두찬’은 실향 의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주어진 장면에서 ‘두찬’과 ‘하원’이 탈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 ⑤ ‘광석’은 자신이 치한 실향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바라다봐야 했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볼 때, ‘하원’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7.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이해

정답 ③

[C]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천천히 거닐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가 된다. 따라서 [C]에서 고독한 정서는 느낄 수 있지만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④ [D]는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란 ~하고 ~란 ~한새 / ~에 ~하고 ~익 ~한새’와 같이 대구가 사용되었다.
- ⑤ [E]는 화자가 술로 인한 취흥에 겨워 시냇물에 떠내려 오는 복숭아꽃을 보며 도연명이 묘사한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봄날의 들판이 무릉도원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8.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은 산봉우리에 올라 바라보는 수많은 촌락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② 화자가 봄에 느끼는 흥취를 수풀에 우는 새가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운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의 흥취가 자연물에 투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녹수를 건너온 봄바람이 술잔의 술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39.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보기>에서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으며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 <상춘곡>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 근거하여 주어진 작품을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감상한 ③은 적절한 내용이다.

고전소설

[40~42] 작품 해제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조선 성종 때에 지은 가사로, 가사 문학의 효시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노래는 작가가 성종 연간에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에 은거하면서 지은 가사로, 제목인 ‘상춘곡(봄 경치를 즐기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의 풍경에 몰입한 작가의 풍류 생활을 제재로 하여, 아름다운 자연에서 봄날의 흥겨움을 느끼며 속세의 부귀공명을 버리고 안빈낙도의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작자 미상, 「양산백전」

이 작품은 중국의 양축(梁祝) 설화를 소재로 하여, 서로 사랑하던 남녀가 죽음과 재생을 통하여 애정을 성취한다는 결연담과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영웅담을 결합시킨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적강한 것이나, 죽음과 재생, 승천 등과 같은 초현실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명나라 때 신이한 태몽 후에 태어난 양산백과 추양대는 입신양명을 위해 운향사로 수학하러 간다. 둘은 삼 년 동안 함께 공부하다가 사랑에 빠져 가연을 맺는 언약을 하고 집

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추양대의 아버지가 추양대를 심랑과 정혼시키자 이를 안 양산백은 변민하다가 죽는다. 추양대가 심랑과 혼례를 올린 뒤 침상에 들려할 때 공중에서 한 선관이 내려와 추양대를 호위하며 심랑으로 하여금 손대지 못하게 한다. 추양대가 신행길에 양산백의 유서를 받아 보고 양산백의 무덤에서 제를 지내니 무지개가 비치며 무덤이 갈라졌고, 추양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양산백과 추양대의 혼이 함께 저승의 선계인 방장산에 가서 태을선인을 만나 후생연분을 맺기를 간구하므로 옥제가 이를 허락한다. 양산백과 추양대는 환건역사로부터 자신들이 삼신산의 신선과 선녀였는데 둘이 정을 통하여 죄를 짓고 인간세계로 적강하였음을 전해 듣는다. 이에 양산백과 추양대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집으로 돌아와 혼례를 올린다. 이때 북방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여 나라에서 인재를 뽑고자 설과(設科)하자 양산백은 이에 응시하여 문무 양과에 장원급제한다. 그는 전쟁에 나아가 큰 공을 세우고 북평후가 된다. 양산백과 추양대는 부귀를 누리다가 80세가 되어 함께 승천한다.

40.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제시된 부분의 ‘그는 ~ 승강이를 벌였으나, 그에게 악의가 없는 것은 그의 언동을 보면 이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양산백의 필적이 아닌가. 필적만 보고도 양산백을 알아보며 반가운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더라.’, ‘창두는 웬 구름인가 하고 놀라서 눈을 비비며 그것을 똑바로 지켜보았노라고 다짐하기까지 하는 것이더라.’ 등을 통해, 이 작품은 사건의 전말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의 시점, 즉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다.

41.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①

[A]는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남긴 편지로, 이 편지에는 두 사람의 과거가 요약되어 있고(‘우리 양인이 인연이 ~ 벽력이 일신을 분쇄하매’)(②), ‘추양대’에 대한 ‘양산백’의 애정이 표현되어 있으며(‘주야로 생각이 간절키로 낭자를 찾아 꿈같이 만나 ~’, ‘낭자를 차 생전에 다시 만나 뵈지 못하고 황천을 돌아다니 이 유한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③),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바라는 바가 드러나 있다(‘원컨대 낭자는 왕래 지시에 한 잔 술로 무주고혼을 위하여 주시면 사무여한 이라.’)(④). 또한 ‘양산백’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을 ‘죽기를 임함에 정신이 혼미하여 대강 기록하노라.’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⑤). 하지만 ‘추양대’에게 닥칠 위기 상황이 암시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42. 관련 작품과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③

이 글과 <보기> 모두에서 두 주인공을 시기하며 분개하는 인물은 등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글의 ‘우리 양인이 인연이 지중기로 삼 년을 함께 지내며 공부하면서’ 부분과 <보기>의 ‘축영대는 양산백과 3년 동안 한집에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이 글의 ‘추양대’는 ‘양산백’이 아닌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고 신행 행렬을 하던 중 편지를 받고 울다가 ‘양산백’의 갈라진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보기>의 ‘축영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길목에서 ‘양산백’의 무덤을 보고 슬퍼하다가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다.

⑤ 이 글의 ‘우리 양인이 인연이 지중기로 삼 년을 함께 지내며 ~ 피차에 남자로되 맹약함이 금식갈거늘, 하물며 여자가 남장을 한 것을 안 연후에 다시 범연하리오.’ 부분을 통해 첫 만남에서 ‘양산백’은 ‘추양대’를 남자로 알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의 첫 문장을 통해, ‘양산백’과의 첫 만남에서 ‘축영대’가 남장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부하는 내내 ‘양산백’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

[43~45] 작품 해제

김용준,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특이한 모양의 두꺼비 연적을 소재로 한 일상사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어느 날 글쓴이는 가다 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을 하던 골동품 가게에서 볼품없고 어설픈 모양의 두꺼비 연적을 본다. 그리고는 값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온다. 이에 아내는 집안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쓸모없는 연적을 사 왔으며 바가지를 긁고, 글쓴이는 연적 산 값을 보충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된다. 글쓴이는 볼품없는 두꺼비 연적을 통해 세속적 영리와 거리가 멀고 순박함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고독한 자신에게 위안을 준 다며 두꺼비 연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43. 글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의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등에서 열거법을 사용하여 두꺼비 연적에 대한 글쓴이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특 튀어나온 눈썹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

오고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주속(綾羅紬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부분에서, 대상을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두꺼비 연적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ㄷ). 따라서 ㄱ과 ㄴ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44.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②

두꺼비 연적을 사 온 것에 대해 아내가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고 하자, 글쓴이는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줄 테니 걱정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유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네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렇게 글을 써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라는 ②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의 ‘~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독함을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분을 통해 볼 때, 글쓴이는 두꺼비 연적을 고독한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답이다.

45. 작품에서 핵심 소재가 갖는 의미 추론

정답 ③

㉡의 바로 앞부분에서 글쓴이는 두꺼비 연적에게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쑹덜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에서 이는 마치 시골 색시가 비단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인 ‘나’가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다.